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社說

砂防事業令
─그 濫用에 注意하라─

一

全朝鮮林野의 總面積은 一千六百六十萬町步로서 그의 約一、二六%의 二十萬町步는 禿裸의 野가 아니면 荒廢林野라는 바 그 荒廢禿裸의 林野는 大槪로 村落 또는 田畓의 附近에 散在한 것만큼 그로부터 밧는 弊害가 더구나 莫大해진다. 年年豪雨로 因하야 土砂는 流下되고 河床은 놉하지매 道路는 埋沒되고 鐵道와 橋梁은 破壞되고 農耕地는 여지업시 결단나고 마는 것이라 交通上으로나 産業上으로보아 거긔 對하야 어떠한 施設이든지 行하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 勿論 그 根本的 施設로 말하면 植林奬勵에 잇스나 植林은 短時日로서 곳 效果를 낼 수 업스니 應急的 施設로는 위선 砂防工事라도 必要하다 總督府에서도 그 點에 留意하야 大正十一年以來 砂防工事를 着手하얏고 또 近年 窮民救濟 砂防工事를 擴張햇스나 砂防의 所要面積이 本來 廣大함으로 아즉 그 工事의 施行은 滄海의 一粟과 다름이 업다

二

지금 總督府에서는 이미 工事해 노흔 區域의 保護와 장차 工事를 行할 區域의 便宜를 한께 爲하야 砂防事業令을 發表하기에 이르럿다 그 法令은 全文 十二條로 構成되야 잇고 그 모든 條文은 砂防工事를 爲하야 必要한 것이니 우리로서 구태여 異議를 부르짓고자 안한다 그러나 砂防事業令의 第六條에 잇서서는 砂防工事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 測量 又는 調査를 行하며 또 不得已한 때 그 土地에 잇는 障碍物을 變更 又는 除却할 수 잇다고 規定하는 同時 한거름 나아가 그 土地의 一時使用 又는 形狀變更과 그 土地우에 잇는 土木竹石의 使用도 行할 수 잇다고 規定하얏다 勿論 砂防工事를 進行하는데 잇서 그만한 法令이 必要치 안한 것은 아니로되 그 法令을 濫用하는 곳에는 人民의 受害가 不小할 것이니 그래서 그런지 萬一 人民의 受害가 잇다면 補償한다고 附記해 잇스나 本來 그 補償은 바라기도 어렵고 또 그 補償額이 꼭 그 損害에 相應하기도 어렵다 그 뿐이 아니라 第十一條에 잇서서는 砂防施設에 依하야 利益을 享受한다고 認定되는 者에게 그 砂防工事費의 全部나 或 一部를 負擔시길 수 잇고 또는 砂防工事 施行을 爲하야 勞力이나 物品을 提供시길 수 잇다고 規定해 잇다 이 條文도 第六條나 마찬가지로 濫用된다면 그것은 決코 善政이 아니요 惡政이니 勿論 利益을 밧는 者에 限하야 負擔을 課한다고 함으로 一見에 大端 公正한 듯하나 그 利不益의 判斷 또는 그 利益程度의 計量 等이 重大한 問題로 남아 잇다

三

要컨대 어떠한 法令이든지 法令 그 自體의 規定도 어대까지 人民本位로 서워야 할 것이지만 그와 同時에 그 法令 運用의 精神도 어대까지 人民本位로 하여야만 한다 萬一 그 運用을 그릇친다면 아모리 조코 훌륭한 法令이라도 意外의 結果를 맷게 되는 것이다 朝鮮은 어느 나라보다도 林野保護의 必要를 늣긴다 總督府에서 그 保護를 徹底히 하려는 것은 決코 그 本意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林野保護로 因하야 各地方人民의 非難이 얼마나 노파잇는가 이 人民의 非難을 오즉 그들의 無理로서만 解釋하려는가? 總督府當局者는 모름즈기 이 點에 [illegible] 萬一 그러치 못하면 水利組合區域內의 地價가 暴落되듯이 砂防施設區域附近의 地價도 暴落될는지 모르는다 水利組合의 失敗를 또다시 砂防施設에서 되푸리한다는 것은 總督當局者의 體面上으로도 容許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中國에 軍艦等提供코 米國서 銅山港租借
臺灣과 指呼間에 位在한 이만치 海軍當局은 重大視

【東京二十三日發】 福建省銅山港租借契約이 米國과 十九路軍代表(上海事變以後 福建省華僑의 希望으로 同地에 移駐한)間에 締結되엇는데 米國은 銅山港에 飛行場을 建設한다는 情報는 過般 米國이 福建省으로 進出한다는 各種情報와 갓치 日本 海軍當局에는 國防上 輕視할 수 업는 重大問題라고 하야 注目하고 잇다 今般 銅山港租借契約成立에 關하야 當局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米國海軍이 福建海軍에 對하야 今年內에 潛水艦二隻 飛行機六臺(三臺는 爆擊機) 高射砲十五門 同彈藥五千發을 輸送하는 條件으로 銅山港을 米國에 租借한다고 한다 米國의 福建省進出은 航空方面에 特히 主力하야 米中航空密約이 成立되는 同時에 前般 成功한 中國航空公司의 上海마닐라間航空路開設과 十九路軍과 華僑의 運動으로 米國의 軍用飛行機給與와 따라 福建防空施設의 擴充 漳州及福州泉州間의 自働車交通에 對한 軍事的 策動의 副産物로 보는 自働車賣渡 其他各種利權獲得 軍需品賣給 軍事的 根據地占領等으로 米國의 進出이 漸次 具體化하는 事實은 看過할 수 업는 重大한 事實이다

日貨排斥目的한 原産地證明條令
九月一日부터 實施決定

【電通上海二十五日發】 日本品排斥코자 商品에 原産國名을 原産國語로 記入하는 原産地證明條令은 國民政府에서 暴者부터 審議中이든바 九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五日 海關에서 如左히 正式으로 發表하얏다

改正한 領事『인보이스』條令을 如左히

貨物荷受人이 領事『인보이스』를 提出하지 못할 時는 通常證明料金의 三倍를 供託하야 支拂할 領事證明原本을 提出하지 안는 時는 沒收한

右改正實施는 一九三三年九月一日부터 輸入되는 外國貨物에 對하야 此를 施行한

◇原産地表記條例◇

【電通上海二十五日發】 九月一日부터 實施되는 輸入貨物原産地表記條例는 如左하다

一、모든 輸入貨物은 容器、表裝을 아라보기 쉬운 場所에 中國文字로 原産國證明을 明記할 것

二、前項의 表記가 업는 것은 稅關에서 注意하야 記入할 것

三、輸入品中 左의 二項에 該當하는 것은 原産國表記免除로 看做함

가、容器或은 包裝이 貨物과 가티 賣却되야 容器包裝의 表記가 判然辨別할 수 잇는 것

나、表記와 對照하야 模糊한 事象을 包含하는 것은 海關에서 沒收함

그리고 右表記를 漢字或은 英語 併用하는 것은 現在 海關과 財務部서 折衝中이며 併用될 與否는 未決中이다

明年一月로 實施延期

【電通上海二十五日發】 原産地表記條令은 財政部稅關에서 調査한 結果 同條令은 明年一月一日外지 實施를 延期하기로 確定하야 九月一日부터 實施하지 안는다고 言明하엿다

官界에 波紋던진 新恩給法規程

官界一大波紋을 던진 十一月一日부터 實施할 恩給法改正을 압두고 退職希望者가 續出하는 現狀으로 官海各部門은 異狀을 呈하고 잇는데 此等退職希望者의 大部分은 改正恩給法을 充分理解치 못하고 輕率히 進退를 決하려는 傾向이 만하 總督府는 各道에 對하야 詳細한 通牒을 發하야 誤解를 一掃하기로 되엿다 가장 念慮되는 것은 名譽昇給의 加算除外와 恩給停止制度의 二點으로 新恩給法의 規程은 大體左와 如히 現職者는 改正前과 거이 다름이 업게 되엿다

一、新恩給法은 辭職할 時의 昇給은 恩給加算의 特典을 喪失하는 것으로 아나 新恩給法은 退職前一年間의 俸給을 基礎로 하야 當時의 支給額이 二年以上을 經過한 者는 判任官은 一級俸 巡査는 俸給의 百分之十五外지 名譽昇給이 加算되다 또 公務에 依한 傷病退職은 無條件으로 容認하기로 되엿다

二、新恩給法은 四十歲未滿은 八分之一 三十五歲未滿은 六分之一의 恩給率停止를 規程하얏스나 此停止制度는 新法施行後에 就職者에 限하야 適用하는 것으로 現職者는 除外되여 잇다 그리고 新恩給法은 軍人에 限하야 適用되는 公務傷病年金制度를 警察官監獄職員에 外지 擴充한 特典이 잇다

京城副府尹 來明年에 實現

京城府에서 多年要望하든 京城副府尹問題는 現府尹井上淸氏의 九月勅任昇格에 伴하야 明年度부터 實現키 爲하야 總督府內務局은 副府尹인 府事務官一名을 明年度豫算에 要求하엿는데 右는 人事行政關係上 明年度는 中央當局의 容認을 엇기 어려운 事情도 잇슴으로 財務局에서 削減하엿다 따라 明年度實現은 不可能하게 되엿스나 財務當局도 副府尹新設은 趣旨上으로는 承認함으로 來明年度에 實現될 것은 確實하다고 한다

宋子文歸國後에 國策確立會議開催

【聯合上海二十五日發】 宋子文은 二十九日歸國하기로 되엿는데 宋氏歸國을 기다려 南京中央部에서는 宋氏를 中心으로 財政外交國策確立次 一大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日英間事態 緩和함이 目的
岡田代表談

【電通桑港二十四日發】 今日 秩父丸으로 桑港에 入港한 倫敦日英民間通商會議代表岡田源太郞氏等五名은 左와 如히 말하엿다 我等은 日本綿業에 致하야 苦憂하고 잇다 日英間에 緊張된 事態를 엇더케라도 緩和케 할 目的으로 渡英한다

盜難文書事件 依然五里霧中

【電通리스본二十四日發】 在間葡萄牙公使旅行中 外交文書와 小切手의 盜難嫌疑者로 同公使館雇人運轉手를 召喚하야 問審한바 些毫도 窃取한 痕跡이 업다

大田等三邑 府로 昇格
郡屬增員은 延期

總督府內務局은 近時急激히 發展한 大田、光州、及全州三邑을 府로 昇格식히기로 決定하고 豫算三萬六千圓을 九年度에 要求한바 查定한 結果 容認되엿슴으로 右三邑은 明年四月부터 府로 昇格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地方事務膨脹에 伴한 郡屬及大邱平壤兩府의 府理事官配置와 貧弱한 面에 對한 國庫補助는 留保되엿다

協定問題成否는 鈴木氏態度에 依存
政友側果然參考로 提議?

【電通東京二十五日發】 齋藤首相의 鈴木、若槻兩總裁와의 會見은 一次 終了되엿스나 問題는 序幕에 不過하야 二十八、九日頃에 擧行될 鈴木總裁의 齋藤首相答訪으로 政友側의 國策이라는 것이 總理에게 提出되야 問題는 具體化할 터인바 二十四日會見에서 若槻總裁는 總理에게 『政友와의 協定을 民政에 가저와도 困難하다』고 明言하얏스는즉 이에 對하야 總理는 『政友案은 다만 參考로 提供할 것임으로 安心하여주기를 바란다』하엿다 그래서 問題는 政友가 果然 參考로 滿足할는지 그 與否에 잇다 政友幹部의 空氣는 槪略協調的이나 政友案에 對하야 總理의 態度如何로는 그 對面上 國策協定交涉을 不結果로 만들고 말는지 모르며 이미 五項目을 決定하고 잇는 以上 到底히 總理案에 盲從할 수는 黨內事情으로도 許容되기 困難한 바로 要컨대 問題의 成否는 總理의 心境보다는 도리어 鈴木總裁의 態度如何로 決定될 모양이다

若槻氏答訪은 儀禮에 不過

【電通東京二十五日發】 若槻民政黨總裁는 來週官邸로 齋藤首相을 訪問答禮할 터인바 總裁와 首相意見은 完全히 一致하야 只今外지로는 아모 問題도 업슴으로 同總裁訪問은 儀禮에 앗치어 다만 人事交換程度에 不過할 모양이다

專用飛行機로 羅氏向新疆發
形便보아 入露할 모양

【電通南京二十五日發】 羅文幹은 二十五日午前八時三十八分 隨員과 專用飛行機로 新疆으로 向하야 出發하엿다 滯在六個月豫定으로 途中 駐露大使顔惠慶과 會見할 터이며 形便보아 入露하리라고 傳한다

◇閣議中止 【電通東京廿五日發】 二十五日定例閣議는 橫濱港外에서 擧行하는 觀艦式에 齋藤首相以下閣僚가 參觀하게 되엿슴으로 停止하엿다

棉價補償과 正租檢查復活

總督府九年度豫算은 財務局查定이 終了되야 昨二十四日로 各局에 通知를 發하엿는데 削減된 豫算에 對하야 各局課에서는 이의 復活을 要求코자 財務局과 折衝을 거듭하고 잇는데 農林局의 主要豫算인 棉價補償案을 爲始하야 田作增殖에 依한 補食無奬勵等도 削減되고 또 正租生産檢查의 國費도 削減되엿슴으로 補食物奬勵는 中止될 棉價補償 正租生産檢查는 復活要求키로 決定하엿다

夕刊後의 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〇九四〇	二〇高
鐘新	一一三〇〇	三〇高
日産	八一五〇	一〇高
東新	一九二五〇	二〇高

東京短期

後場	大引	高價	低價
東新	一九三四〇	一九三七〇	一九三〇〇

政友會國策案 五大政綱으로成立
鈴木氏廿八日首相에게提示?

【電通東京二十四日發】 政友會는 鈴木總裁齋藤首相의 二次會見에서 提出하는 國策에 對하야 首腦部間에 數次協議會를 開催하야 草案을 練하야 大體成案을 어덧슴으로 鈴木總裁에게 提示하엿는데 總裁는 今明日中에 床次、望月兩氏其他長老에게 案의 內容을 提示하야 諒解를 求한 後 二十六日午後 最後的 起草委員會를 開催하고 文章으로 만들어 아마 二十八日午前中 鈴木總裁로부터 四谷私邸로 齋藤首相을 訪問하야 提示할 터인데 案의 內容은 三大指導精神과 十大政綱과를 取捨壓縮하야 五大政綱으로 하야 各其內容을 說明한 것으로 그 骨子는 如左하다

一、外交 國防問題

二、日滿問題

三、產業經濟問題

四、財政問題

五、行政機構改革

以上 五項目의 結論으로 人心不安問題에 言及하야 그 源泉을 匡하야 이것을 一掃하기를 力說하엿다

滿洲瞥見 (四)
新京과 中東線
特派員 金炯元

昔日長春今新京

奉天에서 新京外지는 밤車를 타게 되야 어둠 속에 滿洲의 中心地帶를 通過하게 된 것은 매우 遺憾되는 일이다 午前五時頃에 눈을 떠 본즉 발서 范家屯에 이르럿다 窓밧글 내다본즉 茫茫한 平原에 아츰해가 빗치어 차는 한풀밧치 눈을 부비고 잠을 깨는 듯하다 얼마 아니가서 여기저기 三角標柱가 서 잇는데 이것이 所謂 國都建設計劃의 標的이라고 한다 五個年의 日과 一億圓의 資金으로 二十萬平方粁의 長方多角形의 地域 안에 新國都는 將來 百萬의 人口를 收容하기 爲하야 今春解氷期부터 一齊히 工事에 着手하얏다고 한다 午前六時 新京(長春)驛下車 朝飯後 S兄의 引導로 要人을 맛나기 爲하야 自動車로 市街를 一週하엿다 거리마다 車馬의 沙汰요 간데마다 몬지의 洪水이다 市街도 아즉 보잘 것이 업고 오족 旅行者의 몸을 疲困케 할 뿐이다 新京市內와 附近各地에 散在한 同胞는 一九三一年末에는 五千七百三十九人이엇는데 今年三月末現在는 八千四百五十三人으로 二千七百十四人의 激增을 뵈이고 잇다 이것은 事變後 農民이 都市로 集中한 것을 如實히 말하는 것이오 現在 新京市內에는 東二條通、入船町、梅枝町等을 中心으로 二千餘名이 居住하는데 定業으로는 精米業、旅館業、料理業과 小賣商이 잇슬 뿐, 其他는 待機中의 失業軍이라고 한다 또 여기에 한가지 말할 것은 事變以來 物價가 暴騰하고 住宅이 不足하야 房 한간에 百圓 二百圓의 權利金을 주고도 借得하기가 困難한 形便임으로 同胞의 大多數는 宿食에도 만흔 困難을 當하고 잇다 한다

微妙한 新京驛頭의 感觸

哈爾賓을 가라하면 新京驛構內 中東鐵道(現在北滿鐵道로 改稱)『홈』에서 車를 타게 된다 新京驛에는 세 停車場事務所가 잇스니 其一은 南滿洲鐵道會社의 新京驛이오 其二는 滿洲國鐵路總局에 屬한 新京站이오 其三은 蘇滿合辨의 北鐵驛이다 이 事實만 가저고라도 新京驛이 얼마나 『셰리케트』한 地點인 것을 充分히 짐작할 수가 잇겟거니와 滿洲側軍警을 비롯하야 日本軍警이 武裝한 채 여기저기 警戒하는 양을 볼 때에 異樣의 感觸을 밧지 아니할 수 업섯다 午前八時四十分 K、B라는 略字로 中東鐵路를 表示한 列車에 몸을 실엇다 列車의 構造는 大槪 滿鐵의 寢臺車와 彷似하나 天井이 드놉고 車窓이 넓은 것을 보아 키큰 사람들의 솜씨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잇게 한다 한편 通路의 車窓下에 面하야 접바침과 椅子가 되고 다드면 그만 壁이 되는 簡便展望席이 잇다 나는 무엇보다도 구경이 目的임으로 얼는 이 자리에 나 안저서 길고 가는 露西亞담배를 처음으로 붓처 어물고 初面江山인 北滿의 風景을 구경하기로 하얏다

中東沿線의 風景點描

山하나 안뵈이는 풀밧이 끗간데를 모르도록 太洋의 물결과 가치 굽한다 나첫다 그커 그대로 連續할 뿐, 이따금 뵈이는 웅덩이가에는 마소와 한쇠 羊과 도야지가 몸씨를 지어 뛰어노는 양이 몹씨도 거륵하게 뵈인다

굴네버슨 말이오 곱비업는 소일세。 오리와 빗가치 만흔 한구름 들에는 山덤이 가튼 것이 이 八月의 뜨거운 볏을 흠신 바다보며 눈부시게 反射한다。하지도 거륵해라。옷업는 풀밧을 바라보며 네자리내자리를 番號로 차저안는 人間의 얼골이、엇지 그리 醜해 보이느냐!

車는 昨年에 큰 싸움을 치럿다고 하는 寬城子를 지나 여간치 안은 곳에는 停車도 하지 안코 北으로 北으로 우리의 眼界를 移動식히기에 밧브다 이 滿路는 露人의 經營인 만치 停車場의 建築은 勿論이오 沿線에 뵈이는 住宅들도 大槪는 露國式이 만타。碧眼紅鼻의 金髮美人이 白楊木 그늘 아래에 거니는 姿態를 자주 보게 되니 정말 『아라사』나 간 듯도 십다。停車場마다 銃臺가 잇서 쇠북이 울닌 다 銃眼들이 一朝有事時의 光景을 想像케 함도 中東沿線의 特異한 風景의 하나라고 하엿들가。

露國의 對東方策
中東鐵道의 來歷

風景點描는 이만큼 하여두고 이 機會에 中東鐵道란 무엇인가 그 過去를 回想하고 現狀을 살펴보기로 하자。數朔前부터 東京에 여얼닌 中東鐵道讓渡交涉은 아즉도 雙方이 에누리하기에 精力을 다하는 中이라 한즉 그 結末이 언제 엇더케 날는지 모르거니와、이 鐵道는 東方의 莫斯科 或은 北滿의 上海라고 하는 哈爾賓을 中心으로、西는 滿洲里、東으로는 포크라니치나야에 이르고、南은 長春(新京)에 미치는 幹線 一千七百二十七粁의 大鐵道로서、歐亞交通의 幹線일 뿐 아니라、縱橫的으로 北滿의 大動脈이오 또한 西伯利와 沿海州를 連絡하는 捷路로서 政治的 戰略的으로 重大한 意義를 가진 露西亞의 東方政策을 遂行하는데 큰 所任을 하고 잇는 帝政時代나 革命以後나 일반이라고 할 것이다

이 鐵道는 日淸戰爭後 三國干涉의 副產物로 一八九六年의 露淸同盟密約에 依하야 一九〇〇年에 起工하야 一九〇二年에 竣工한 것인데、이로부터 露帝國의 滿蒙經營에 對한 雄圖는 겨우 實現의 域에 이르라 얏스나 未久에 日露戰爭이 되야 長春以南의 南滿洲支線을 日本에 割讓하게 되얏스며 結果는 日露中三國의 勢力은 長春을 接觸點으로 直接交涉을 갓게 된 것이다。그 後 露西亞에는 帝政이 넘어지고 勞農政府가 樹立되자、列國의 西伯利出兵을 보게 되얏고、米國을 主體로 한 列國의 監督下에 此線을 經營하게 되얏스며 뒤를 니어 中國의 利權回收運動이 잇섯스나、蘇聯의 勢力이 伸展됨에 따라 蘇中蘇奉의 兩協定을 거치어 畢竟에는 兩國의 共同經營으로 되얏다。그런데 一九二九年에 中國이 實力으로써 이를 回收하야 蘇聯의 勢力을 驅逐하라 하얏슴으로、마츰내 國境에서 兩國軍隊의 交戰을 보게 되얏스나 中軍이 不利하야 同年十二月에 哈府에서 드듸어 協定을 締結하고 鐵道만은 紛爭前狀態에 復歸하엿스나、正式交涉은 莫斯科에서 進行中에、一九三一年 滿洲事變으로 交涉조차 흐지부지되고 말엇다。이와 가치 中東鐵道의 歷史는 實로 極東에 잇서서 列國爭覇의 縮圖라고 볼 수 잇섯스니、時局이 한번 밧구인 今日에 잇서서、蘇聯이 이 鐵道를 放棄하고 北滿에서 손을 떼이라 한동은 무엇을 말함이라 할가。앞으로 展開되라는 狀勢야말로 世人의 注目을 끌고도 남음이 잇슬 것이다。(中東車中에서)

【南柯一夢의 土地猝富熱】

最高五圓最下一圓廿錢 收用價格을遂決定

地主들은大槪不服할形勢

羅津土地黨大恐慌

일개의포변(浦邊)으로보잘것업든라진항(羅津港)이돌연북조선의대관문으로결정을보게되자토지가격은 날개를돗친듯이 올려가한평에 몃파십전내외 하든것이 오십배백배 이백배로폭등하는과히로토지『뿌로-커-』가성행되고 따라서일확천금한 토지대왕도만히내엿든바 작년팔월이십삼일 총독부당국으로부터 동항축항용지(築港用地)팔십만평의수용(收用)을발표하야수용을바든 지주들사이에 별별히비극이연출되더니 최후까지 수용을반대하고만철(滿鐵)측에항하야가격인상을 운동하고잇든 지주륙십이명(二百七十三萬坪)은의연이 맹렬한운동을 계속하고잇든중 동항의축항결정후 만일개년 만인 지난 이십삼일 에함북도지사(咸北道知事)는삼십만평에 대하야 수용가격을아래와갓치 결정하고 즉시발표하얏다

만철측의 보상 금액(補償金額)은 할당하다고인정한다 즉 신안면신안동(新安面新安洞)의(羅津港의中心地帶)의주택지를 표준으로 최고오원, 최저는 신안동남쪽륙십칠정이나 떠러저잇는 명호동(明湖洞)을 일원이십전 으로한다 리유는 라진만지방 지가변천을 조사한결과 이와갓흔 결정을내린 것으로 대정사오년경 일시지가가 올나섯스나 니여떠러지고 대정십삼사년에 다시떠러진 시세로 올나 섯스나 얼마되지 안어 일이십전 으로 떠러커 소화 삼사년경 에도 이원 오십전까지 올낫 다가 십전대(臺)로 되엿다 만주사변이후 돈도선(敦圖線)공사착수후 공전에업는 시세로매매가되고 매매가 가장심하든 작년팔월 종단항(終端港)발표와동시에 최고 오원으로되얏든바 그이상의것은 특수사정에 인한것이라고보아 금번수용령처분지는 가격이 합당한것이다 이로인하야 최후까지 엣치고잇든지주들도 수용령을 당하게되엿으며 이에불복하는 지주는 삼십일이내에 함북지사를경유하야 총독부에 불복신립하기로 되야잇다

이에대하야 대부분의 지주들은 기운이 풀린듯하나 아직도일부지주측에서는 대판(大阪)신호(神戶)등지에잇는 지주들에게 격문을 띄우는등 반대운동을 이르키고잇다 하여간 전긔수용령 발포와동시 일확천금몽에날뛰든 수다한 토지『뿌로-커-』들은 최후의희망조차 닐어커불평의소리가 놉다한다

羅津都市計劃案

最近完成되여不遠發表

三十萬名人口를標準

일주부터 총독부토목과에서 립안중에잇든 라진도시계획안(羅津都市計劃案)은 최근완성되고 군부(軍部)기타관계방면의량해도 어덧슴으로 머지안어발표되리라는데 발표될 계획에의하면 종단항(終端港)으로결정된이일개의포구에 불과하얏든 라진항을 장래의 대발전을예상하야인구삼십만을포용하기에유감업슬근대문화적대도시의 건설을 원측으로하야제반 시설은 라진의행정청인함북경흥군신안면에서 시행하기로되얏는데동면의재정으로는 불가능함으로 도도하수등은국비로써실행하기로결정하고명년도예산에 계상하얏다

五、一五減刑運動 全國的取締發令

思想運動化憂慮로

【電通東京二十五日發】 오、일오(五、一五)사건피고 감형운동은 최근더욱 치열하야 전국적으로팽배하야 일종의 대중운동으로화하려는 경향이잇스며 이긔회를타서 주의자들이 책동하야 불온한 사상운동에로 전화하려는긔색이 보인다하야 내무성경보국(內務省警保局)에서는이것을주목하야 이십사일 긴급대책협의한후 각각법규에 빗추워엄중히 취체할필요가잇다고 결정하고 즉시전국지방장관에 대하야 극비밀리에오、일오사건의감형운동과이에대한치안유지에대하야엄중한사찰취체를명하얏다 그내용은 먼저오、일오사건피고에대한감형운동은합법적인한에는간섭할필요가업다는것으로전제한후 최근의운동은 불온한 사상운동으로 리용당할 우려가잇다고 강조하야 전국감형운동의 실정을 상술하고 위반자를 될수잇는대로 미연에 방지하고 따라서 범측자에대하야는 청원령치안경찰법출판법기타법규에 빗추어 용서업시 엄중히취체하라고한것이다

三井의燒酒獨點 九分九厘까지完成

秋期부터獨點支配下에供給

委托契約은九月中旬

북조선산업에 잇서서 유망하고 큰부분으로서는 남기지안코 그손을너허 소위산업통제(產業統制)명목미테 산업의독점을계획하는일본대재벌의활동은근년에이르러 점점그긔세를 올려고무사업이 그러하고 해태(海苔)가그러하고 소주(燒酒)가 역시그러하게되여 최근에 전하는소식에 의하면것가튼면 삼정(三井)의손으로되는 북조선 소주통제는 착착그진전을 보게되여각도를단위로하야 조직되는 공동판매조합(共同販賣組合)은지난팔월사일에 황해도(黃海道)의 조합조직을 비롯하야 그중에서는제일 난관이라고 보아오든평안남도조합과 강원도조합의 조직을보게되엿다 오는이십팔일에는함경남도조합의조직을 보게될터이요 경긔도는 오는삼십일에는 조합이결성될예정 이라고한다 그다음으로남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두조합도 구월상순중에는 조직의완료를 볼터로 결국일곱조합이모다 구월상순말경에는 그조직을 마칠모양이라고한다 따라서 이조합들과 삼정물산사이에 정식위탁 판매계약도 구월중순경에는 체결될것이다 이와함께 신식(新式)과 재래식(在來式)을 불론하고 전긔각조합에서 생산되는 소주는 금년의수요긔로부터 삼정의지배미테 드러갈것으로예정계획에 조곰도 지장이 업시 북조선소주통제는 완전히 실현된셈이라고한다

丹那隧道開通

【電通東京二十五日發】 세계적으로 어려운공사라고 전하는 단나(丹那)『틘넬』는이십오일오전열시최후의 공파로서 관통되얏다

襄陽殺兒事件 豫審終結公判에

【江陵】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襄陽郡西面五色里)정병화(鄭柄和)(二〇)에대한상해치사와 시체유기사건은 이래 예심중이든바 팔월이십일부로 예심이종결되어 상해치사죄로 변경되어 함흥지방법원 합의부공판에회부케되엿는데 이제이사건의개요를듯건대 피고는 금년삼월십일일 양녀 금자(錦子)(三)가 감긔에들려오래동안알엇는데 울니함으로 이것을본 피고의모친 리성녀(李姓女)는 금자를 끈치주고 업고자긔집으로 가라는것을 피고는 안된다고금자를 뒷동수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내 던졋슴으로 금자의뒤골에는 오전백동전 만한 구멍이뚤려좌측 소뇌질에 출혈되어 죽진한을 일으켜 동월이십일경오에 드되어사망하자 피고는 시체를면장의인허가업시매장하여버린것이라한다

米洲에大暴風

【華盛頓二十四日發】 이십삼일부터 『버지니아』주로부터『뉴욕』주에 걸쳐 대서양(大西洋)일대에 대폭풍우가 습래하고 홍우는일주야나 계속하야『포도막크』강은 대증수가되고 사망자 여섯명을 내이엿다 대폭풍우는『메-인』주로부터 남쪽은 북카로라이나주에이르는 일천삼백『마일』지역에 파급되고 특히『메릴랜드』와 『뗄라우에아』지방은 피해가심하야 면화(棉花)수확이 염려되며 다 현재판명된것은 사망자이십명을내고 손해액은 일백만불이라한다

糟糠妻에賊反荷杖

살다못하야갈려잇는사이에 안해버린살림빼앗고내쫓처

그女子의十年刻苦成果

경긔도파주군 탄현면갈현리(坡州郡炭峴面葛峴里)편옥단(片玉丹)(三二)은시내마포동(麻浦洞)일백오십팔번지 김개문(金開門)에게로이십오원에 경성지방법원에 위자료 일천오백원의청구소송을 제긔하얏다 두 사람은 의문부터 십이년전에서로결혼을하얏다 당시에 남편은 룡산제과회사(龍山製菓會社)에 직공으로다니고 잇섯는데하도생활이 곤궁하여서 안해는그과자공장 직공들의 옷도빨아주고 혹은룡산정미소직공으로다니면서힘미치는데까지벌려다가생계를도왓다 그러다가그뒤대정십삼년에는남편이직업을잃어버렷기때문에 룡산병긔공창 소채부로 다니기까지하면서 어떠케해서든지 살아갈라고 애를써왓다

그러다가 소화이년봄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생활난으로남편은 하는수업시 고향으로도라가기로 결심까지하얏섯는데 마츰그때에 편옥단의 북촌읍아버니가 도화동에서 음식점을내어보라고 권유함으로 거긔서조고만한집을 어더가지고 음식점을개업하얏는바 영업이 점점번창하야 차차로는 벌려서집간도확장하고 또이웃집더도 사가지고집을 새로지어서 금사월에는이사까지하야 넷날의 군색한생활은 간곳업고 아주남부럽지안케 유족한 생활을하게되엿스며 하로에 평균삼사십원어치나 매매가되는 현상이며또 식궁잇는 남편의 어머니와친처의아들도 데려다가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에입학시켜공부를시키고잇는중인데 남편은 차차상질이 방탕해져서고용으로 드려오는 녀자는닥치는대로 관계를해버리고 또재작년사월부터는 작부 신영애(申英愛)를 첩으로정하야 안해의면전에서 서로찻고구어자며 또엽마큰 부터는안해를미워하기시작하야주먹다짐을해서쪼차내어버림으로부득이친정으로도라가서잇는중인데 십여년동안에 모든힘을 다해가면서 살도리를 작만하야 이제는 수중에 몃천원재산이놀게되기까지된 이때에 과거의공로를 이저버리고 나이중듬으니가된 안해를쏘처 내어버림으로 압으로 살아갈길이 막연하니 긔와가튼 위자료를 청구하는것이라한다

鐵路에서作亂타 少年이轢死

이십사일 오전 일곱시오십분경 에 함경선 경성오맥킬로지점에서 주을(朱乙)가원산긔차가 사백구십삼킬로부근에 이르럿슬때 어떤소년소녀두명이 밥냥을가지고 놀기에 눈이팔니여 선로안으로 드러왓슴으로 열차는 긔적을울니며 급히정거하엿는데 소녀는다행이 선로밧그로 몸을피하엿스나 소년은 밋처 피하지 못하고 무참히갈려죽엇다 철도국에서는 그신원을 조사한결과 소년은 함북경성군주을온면 룡천동(鏡城郡朱乙溫面龍川洞)이백오십일번지에사는 신룡언(申龍彦)(一三)이라하고 소녀는그의 누이인데 룡언은 조곰먼귀를먹엇다고하며 시체는 그의량친에게내주엇다고한다

平南產業界新寵兒 漆木四十萬本栽培

中國에서輸入하든數萬罐의漆을 自給補充코저새試驗

【平壤】 평남일대에서매년사용하는 옷(漆)은 중국방면에서 수만관을 수입하여 그금액도막대한수자에 달하든터인데 평남산업과에서 조사한결과 평남의 대재원으로 볼수잇는옷나무(漆樹)는성천(成川)군내에만 오만본 개천(价川) 강동(江東)양덕(陽德)맹산(孟山)사개군에도일만본이나 야생(野生)으로잇는 것을발견하엿다 옷나무는개똥나무라하여 더러운나무로 천대하여왓스나 이나무야말로 년년히중국방면에서 수십만원식 수입하여 오는옷을 만드는 귀중한 나무인것으로 판명되엿고 더욱이 시험해본결과중국산보다 배이상우량한 품질을 가진것을발견하엿다 가격(價格)도일관(一貫)십삼원내지 이십팔원식임으로 이것을 평남에서 채취한다면 막대한 금액에달할터이다 더욱이 특별히 경과한나무면 채료를 엇을수잇는데 평남에 잇는 옷 나무는 특년생이상이라제로 즉시 채취에 착수할수잇는데 관민간에는 조방하여다가 채취에 착수하는일방 성천민유림 식림처에 그종묘를 식재하야 그의 가치를 인정할수잇슴으로 금후 발전은 크게 기대된다한다

佛國巡洋艦乘員 兩日間市內見學

이십사일 인천(仁川)에 입항한 불국순양함(巡洋艦)『즈모-르』측의 우필동함장이하막료다섯명은 금일 오전열시칠분 경성역도착렬차로 입경하야각곳을 견학하얏다 동함승조원전반(前班)일백사십넘은 이십륙일 오전여덟시 오십륙분 경성역착렬차로 입경하야 역시내를견학하고 오후네시사십오분발차로 도라가리라 는바 후반(後班)일백 사십명도 이십칠일 동차편으로 입경하야 견학할예정이라한다

十年守節홀애비 마츰내離婚을提訴

집나간안해를십년간기두려

男性『노라』의發奮談

고양군룡강면공덕리(高陽郡龍江面孔德里)륙번지 정태영(鄭泰永)(三九)은이로부터십년전 그는나이열아홉살 그의 안해김옥순(金玉順)(三〇)은스무살적봄에서로결혼하야그이듬해봄에두사람사이에는 사랑의 열매로금지옥엽가튼 딸을나핫다 그리하야두젊은내외는아주단꿈하게사랑의생활을 해왓는데 그해십월어느날밤에 사랑하는 그의안해는 강보에싸여서 응아응아울고잇는 젓먹이아이를그냥두고어데로인지 행방불명이되엇다 그리된뒤 남편은 어미업시 애처럽게울고잇는 그젓먹이아이를 웅켜안고 이래가진고생을 다해가면서 딸의 어린아이 어머니의 도라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렷스나마츰내 영영소식이 업다 그래서이제는 그딸아이도 나이여덟살이나되어 학교에도 다니고함으로부득이 단념할수밧게업다하야 이십오일오전에 경성지방법원에 리혼청구의 소송을 제긔하얏다

逃走한犯人 一名은逮捕 奉化署員에게

【大邱】 긔보=봉화 경찰서(奉化署)원이 안동(安東)검사국지청으로 호송하든도중 안동군농천(應川)에서 호송하든 순사가 어덕에서 떠려진틈을타서 수갑을 찬채로 도망하엿든 산림령위반협의자(도박범인오보)영주군평은면오운동 (榮州郡平恩面悟雲洞)남대호(南大虎)(假名)는이십삼일밤열시경 봉화군 물야면오록동(物野面悟鹿洞)에서 봉화서원에게 체포되엇다한다

◇……이슬먹음은나팔꼿……

第二愛人의飲毒

女難못이겨 줄행낭

學生身分에『돈판』이되기싸지

三角戀愛淸算悲活劇

한사람의 학생과 두사람의 권매국녀직공을 차고도는 삼각연애로부터 한녀자는양잿물을 마시여 생명이 위독하게되엿고 이것을 안남자는 자긔로말미암아 한녀자가 죽게되엿다는 것을두려워 하엿슴인지 부지거처가 되여 행방불명 된사건이 잇섯다 본적을부산진(釜山鎭)에두고 시내 죽림동(竹林洞)일백팔십삼번지 김씨의 집에하숙하고 시내모예비학교에서 공부를하고 잇는 김봉안(金鳳安)(三三)은 부근에 사는권매국 녀직공 오부인(吳夫貞)(二九)을알게되여 서로사랑을 주고바더 오든중 하로는 오부인의소개로 그의동무인 가튼권매국녀직공으로 다니는 죽림동이백삼십팔번지 한양순(韓陽順)(八)이가 김봉안의집에 놀너가게되여 그후두사람은 의형매(義兄妹)의 관계를맺고 지나오든중 어느듯의 형매란순진한 관계를 이저버리고 불순한 관계를 가지게되엿다 그리하여 삼각관계는 계속되여 오든중 하로는 한양순이가 자긔의 애인과 오부인과의 정이두터운관계를 알게되여 무한이 번민하든 끗헤 드듸여지난 칠월이십칠일에 이르러양잿물을마시어 자살을 도모하엿스나 김봉안은 그를즉시 아현리(阿峴里)에 잇는 고려(高麗)의원에 입원치료시키고 그후 이십여일후에 다소차료한 보람이잇서 한양순은 퇴원하여 집에잇게되엿다 그러나 그후병세는 종시낫지안코 오히려더 욱심하게 되엿슴으로 지난 팔월 십이일에는 하는수업시 부근에잇는 세제(世濟)병원에 다시 입원케되엿다 그러나 몃날이 경과하여도 효험은업고 입원료는 점점느러감으로 김봉안은 이십이일에 한양순을 퇴원시키여집으로 돌녀보내엿다 한양순은 방금죽림동 자긔의집에서 치료하는중에 병세는 점점더하야 대단히위독지경에 잇다고한다 한편자긔로말미암아 한녀자가 죽게되엿다는 것을알은 김봉안은 겁이낫든지 이십삼일아츰에 하숙하엿든 주인의 집에는 고향으로 도라간다하고 부지거처로 그자최를 감추어버렷다 한양순의 집에서는 김봉안의행위가 너무 단이 괫심하다하야 금후경찰에의뢰하야 그행적을 차즐작정으로서 어린 가슴에 사랑의 상처를밧고 병석에 누어잇는 한양순은 오늘버 일언재 죽을런지 모를위독한 경우에잇다고 한다

邊洛奎等事件 三名은服役

◇一審判決그대로

【平壤】 평남덕천출생으로만주화인현남마(樺甸縣南馬)에주소를두엇든 조선 〇〇단장(朝鮮〇〇團長)변락규(邊洛奎)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 (治安維持法違反) 강도(强盜)피고사건은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십년 판결을밧고불복하고 평양복심법원에공소하여 근일 평양에 송치되여 오리라한다 또한 변락규의 일파로 덕천군덕안면귀상리(德川郡德安面貴上里)에서 군자금을모집한 유영규(劉泳奎)장인준(張仁濬)김준필(金俊弼)의삼명은 일심판결대로 복역중이라한다

白米한馬車가 輸送中行方不明

남대문시장안에잇는 대풍정미소(大豐精米所)에서 고양군룡강면창전리(龍江面倉前里)김성덕(金成德)에게로 마차부윤락서(尹樂西)외한명에게 부탁하야 백미두마차를 실어보냇는데 윤락서는 먼저실고가서배달을하엿스나 성명부지의 다른한명은 중간에서 작구어정거리며 니 해가커볼도록 기다려도배달해주지안코 어데로인지 행방불명이되엿다 그마차에는 백미열세가마니가 실여잇섯다 한다

妻에姦夫잇다고 丈人을毆打重傷

새장가자금을내라고

【保寧】 충남보녕군웅천면황교리(忠南保寧郡熊川面篁橋里)에거주하는최현집(崔賢集)(三九)은장녀부홍(二二)을 칠년전에동면동리에거주하든황호현 (黃顥)의 장자천주(千周)(三二)에게 로출가를시켜 이래 륙칠년간을 단란한 생활을하여 오든중 지난 십구일밤에 사위되는 천주가자긔부친과갓치와서 방문을 부시며하는말이 당신의딸은 간부가잇슴으로 동거할수가업슨즉 다려가고 새로취처를 할터이니비용으로 돈백원을내라하며 무수히 구타까지하고 도라왓슴으로 피해자최현집은 그억울함을참지못하야 지난 이십일일에 보녕웅천(保寧熊川)해창의원공의(海昌醫院公醫)에게이주일간 진단서를내여 당지웅천주재소에고소를 제긔하엿다고한다

前科五犯又竊盜

【新義州】 전과오범주소부정의한상긔(韓尙基)(四〇)는출옥후 얼마안되여 지난십칠일에 신의주부로송정(新義州府老松町)고륜상회(高輪商會)소유자전거를 절취하여 팔려다가또다시 체포되여신의주 형무소에 수용되엿다한다

本報新計劃發表(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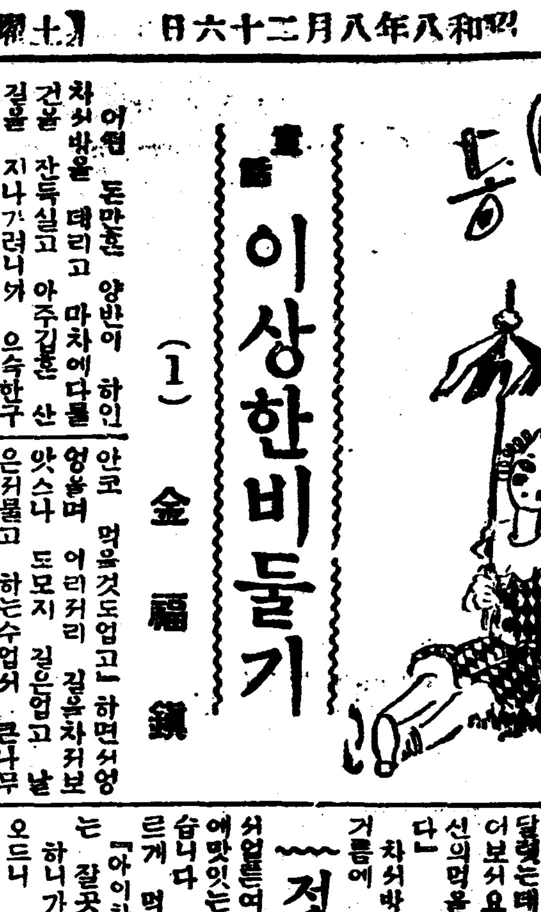
朝刊版의夜間配達

市內及附近讀者에對한特別奉仕

本報가 近近 紙面增大를 斷行하기로 된것은 旣報와 갓거니와 이것을 斷行하는 同時에 本報는 뉴쓰速報의 基本的使命을 遂行하기위하야 京城市內及 附近各都市에 對하야 朝刊版의 夜間配達을 實施하기로되엇다。 이에依하야 全世界의 重要뉴쓰는 約十二時間일쯕이 讀者의손에 들어가게되는것이니 이는 오로지 編輯과 工場의 能率의 短時間的總集中化에 依하야만 成就할수잇는것으로 비록 朝鮮新聞界에잇서서는 新試驗이나 世界的으로는 一般的趨勢에 順應하는 本社의 飛躍的計劃이니 夕刊新聞이 發達된 京城에서 다시 夕刊中心의 眞價를發揮하는 夜間版의威力은 그實現에依하야 讀者大衆의 首肯하는바잇슬것을 確信하다。

……紙面擴張과同時實施。地方發送如前……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童話 이상한비둘기 (1)

金福鎭

어떤 돈만흔 양반이 하인 차서방을 데리고 마차에다 물건을 잔득실고 아주깁흔 산길을 지나가려니까 으슥한구석에서 도적놈이 나오드니 주인을 죽이고 마차에 시른물건을 그냥 마차채로 몰고다러낫습니다 혼자 산속에남은차서방은 엇절줄몰라 벌벌떨며 「주인양반도죽고 나혼자 길도모르고 사람사는집도 보이지안코 먹을것도업고」하면서엉엉울며 어리커리 길을차저보앗스나 도모지 길은업고 날은저물고 하는수업서 큰나무미테가 안저서 걱정을하고잇섯습니다

한참 안젓스려니까 하얀비둘기한머리가 날러오드니 입에무럿든 조고만열쇠를 차서방을주며 하는말이

「저기 큰나무가 보이지요? 그나무가지에 조고만 궤짝이 달렷는데 그궤를 이열쇠로열어보서요 그러면 그속에 당신의먹을것이 드러잇슬것입니다」

차서방은 너무도 깃버서 한거름에 뛰여가서 보니까 궤가달려잇습니다그래

정말

서열든 여러보니까 엡브다란그릇에 맛잇는음식이 갓득담겨잇섯습니다 그래서차서방은 배부르게 먹엇습니다

「아이참 인제 배는부르다마는 잘곳이업스니 어떠케하나」하니가 또그비둘기가 날러오드니 다른 열쇠를 또한개주며

「이열쇠로 저 건너편에보이는 대문을 여러보십시요 주무실 자리가잇습니다」하고 일러주고 날러감니다 얼른가서 여러보니까 그집속에는 폭신폭신한 이부자리가 (?)고 곳에는 보석이 걸려잇섯습니다

차서방은 생전처음으로 호강스럽게 지내는데 조고만비둘기는 날마다 차저와서무엇이든지 갓다달라는것은 다갓다주엇습니다

어떠날 비둘기가 날러오드니 차서방을보고

당신

「당신이 나를위해서 무슨일 한가지만 해주시겟습니가?」

「해주고말고 무슨일이냔」

「당신을 어떤 조고마집으로 데리고 갈터이니요 그집안으로 쑥드러 가십시요 그러면 거기 안젓든 할머니가「어서오십시요」하고인사를하드래도 당신은 대답하지말고 할머니 안저잇는바른손쪽 문을 열고드러가 선반우에잇는 반지를 얼른집어가지고 나와서 나를 주십시요」하고어엽조고만집문안까지데려다주엇습니다

家庭

어린아이작란감은 변령에따라다름니다

잘못골나주면납분영향이밋처 부모가생각할큰문제

어린아이들은 교양하는데잇서 작란감의 힘이란 결코 적은것이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작란감을 주는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갑버하기때문이라든가 어른이 밧게나갓다가선물로사온다든가하는 막연한생각으로서 주어서는안됩니다 작란감은 어린아이들에게 대하야 절대로 필요한것으로서그것으로서 운동도되며 지혜도는는 중요한 임무를 하는것임으로 그선택에 대하야 특히 주의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는것은 특별히 작란감이라고 일홈치지안흔것이라도 주위에잇는것은

무엇이나 손에닷는것을 모조리작란감으로 삼는것입니다 그리고좀 자라서 니러서 단니게될것가트면 창구멍을 뚤는다 정원의나무가지를 썩는다 돌팔매를친다하야 여러가지의 작란을치게됨으로 이를 방지하기위하야서라도 작란감을 따로주지안흐면 안됩니다

아에 어린아이들에게 작란감을주되 그발육된정도에따라서 그것을선택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물론 갓난어린아이에게는 눈도 잘안보히고 귀도 잘들리지안흐므로 작란감을줄 필요는업습니다

삼개월될때 가질작란감

출생한지 삼개월이지나면물건을보고 소리를듯게됨으로 자리옆헤 무슨물건을 노하주거나 천정에 무엇을다라매주며 어든지 무슨소리를내여 들려주기도하여야합니다 이때에는되도록 단순하고선명한빗슴잇는것으로할것이며 소리도단순한것으로 넘우복잡하거나 날카로운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사오삭된때 가질작란감

그리고 사오삭된 어린아이는 물건을 붓잡게됨으로 주되 큰 지고작란할만한것을 너무날카로운것이라든가 부서지기쉬운것은위험함으로 이런것들은금물입니다 그리고 좀더자라면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손에닷는것이면 입으로가저가기를 조아하므로 이러한시대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소독할수잇는것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래 고무로 만든 인형이나 그외 나무로나 쇠로 만든것이 조흐며 쉡은 셀루로이드가튼것으로 만든것은 빗갈잇는것이라든가 고무인형도 빗갈습니다 또 칠벗기쉬운 물건이라든가 동물의털이 붓튼것이라든가 또는쇠여지기쉬운물건들은 절대로 조치안습니다

거를때에 선택할작란감

그다음 걸어단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걸어단니면서 작란할만한 큰공이라든가 나무로만든 자동차라든가 메여치드라도 쇠여지지아니할 인형이나 동물이조흡니다 이런것을가지고 뛰며노는동안에 아지못하게 근육을 발달식이는것입니다

이삼세때에 선택할작란감

어린아이가 훨신커서 두살이지나고 세살이나되면 몸이 더욱더욱 자유로워커서 지혜습니다 다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몸을 운동케하는것 즉자전거라든지건이가튼거나 조흡니다 어쨋든 어린아이들에게 작란감을 주되 잘선택할것은물론이며 어린아이들은 곳실증을 내이나하기 쉬운것임으로 갑빗싼 정교한것을 한두가지 사주는것보다 간단한 값싼것을 만히사줄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란감은되도록 실생활에관계가 잇는것으로 택하는것이조흡니다

사오세로부터 육칠세사지

그리고 사오세로부터 육칠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은 가장작란감을 조와하는 시대임으로 그종류도 가장만코 따라서 작란감으로부터밧는 영향도 가장큰것으로 제일 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

그래 밧게나가서 작란할만한것을택하고 집안에서 가지고노는것으로는 접지(折紙)가튼것이조켓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이라든가 「크레용」가튼것을 주어도 리롭고 투긔심(投機心)을양성할것이며 유희물은되도록 주지안는것이조흘뿐만아니라 발달됨으로 변화만흔물건이라든가 종 생각이드는것을 주는것이 조흡니다

가+을+의 돌겨대를……(四)

물니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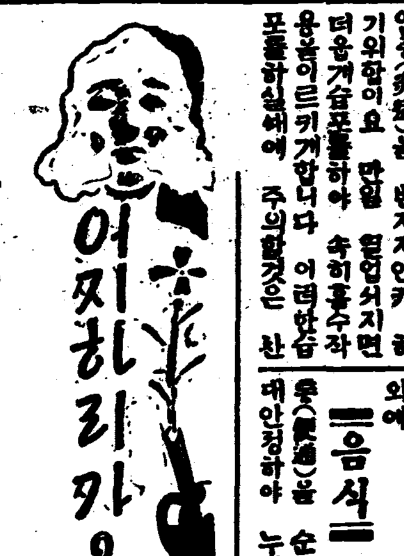
싸홈에는준비가필요

帝大伊藤內科敎室 朴秉來

맹장염에걸니여 이십사시간뒤에, 수술할시기를 놋치든지 또는그후에라도 생명이위급한 경우가 안이오면 내과적치료를 한후에바른편하복부를만지여도 통증이업게된때에 수술을 밧을것입니다 만일이때수술을 밧지안하오면 이후에재발되기쉬웁고 재발이되면 그부분에 유착(癒着)이 심하야 수술이 곤난하게됩니다 만일 맹장염을 내과적으로 치료한다하오면 그것은 근본적치료라고할수업고 다만고식적이오며 수술하기에 편리한시긔를 선택함따름입니다 즉발생하면 맹장염일것갓흐면 떠웁게한다 하드래도 등습이 업서지지안하고 더욱심하게되오니

=위생= 염과구별하수 잇습니다 내수과격으는 어든케 치료하는가 즉 맹장염이 발생하야 신열이 잇는동안은 떠웁게 하지안하고 차게습포를하여야됩니다 이것은 염증(炎症)을 번지지안케 하기위함이요 만일 열업서지면 더웁게습포를하야 속히흡수작용을이르키게합니다 어떠한습포를하실때에 주의할것은 찬것이든지 떠운것이든지 피부에닷케하지안하게 반다시 수건을사오겹으로 겹처서 온수또는냉수에적시며 오른편하복부에대이고그위에다가 빙팡또는 회로를노흘것입니다 이러하는것은 그국부(局部)피부의동상(凍傷)또는 화상(火傷)을 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그외에

=음식= 물은 유동식을 섭취케하며 변을 순조히할것이고 절대안정하야 누어잇게합니다



어찌하리까?

녀자의자백으로 번민을어더

◇약혼을파혼할가요

문 이십오세의 청년이온대 약 오개월전에 사랑하여오든한녀성과 부모님허락아래에 약혼을하엿습니다 그러한데 우연한기회에그녀 서로의불행한일이 될것이라 추측되오니 어떠케하면 조흘까요? 그리고지금파약한다면 양부모님이 용납할것이며 사회에서도 이해할던지요? 그리고이것이 법률문제에 저촉될는지요? 만약된다면어떠한결과를맺겟는지요? (一讀者)

답 약혼하엿다가도 녀자의불미한점을발견하고 파혼하는일도 만습니다만은 지금당신의글을 보니 그녀자가 당신이외에다른남자와 사랑하고잇섯다는것을 고백함으로써 당신이어떠한번뇌를 섞이게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릇된생각이 안인가합니다 녀성으로 당신앞에 자긔의과거를고백하게될때에는당신을그만큼밋는까닭이라고하겟습니다 이러한데에 불구하고 당신을 밋는그녀성을 도리혀의심하게되엿스니 이얼마나그릇된생각입니까 그리고 녀성이 다른남성과사랑하엿다고 하여서 반듯이정조를일케되엿다고는인정할수 업슬것입니다 따라서 한번굿게약속한이상에 당신은그러한일로해서 그녀성을희롱만하게되는것이라고하겟습니다 그럼으로그녀성이 당신과결합되는것이 면설혹하시도록하사는것이 조켓습니다

第二放送課長으로 雲汀 金井鎭氏

제이방송(第二放送)의주임으로잇든 윤백남(尹白南)씨는 신병으로인하야 휴양을 하게되여 희곡가운정김정진(雲汀 金井鎭)씨가 조선방송협회 제이방송과장으로 임명케되야 이십오일본사에인사차로래방하엿다

러쉬아워……(1)

남산의종이울고 공장의 기적이울닌지얼마후 오전여덟점으로 시계지침은일분일분향하여가는 명랑한아츰은! 수정(水晶)파가티투명 한컷가을의 한울에서는 백금(白金)빗의아츰 해가분수(噴水)와가티부스러집니다

「안령하십니까 녀선생님」 다음순간 어린생도들의 경례경례의습격! 구두굽도가볍게일러의문을 너머서는 경쾌한그의 뒷맵시를보십시오!

자는커에게 자기가지난 과거의삼각연애를 고백하고용서를빌엇습니다 즉그녀자는 본인이외에 또한남자를동시에 사랑하여 왓든것입니다 그러나 그남자는 기혼남자인까닭에그 녀자의오직취할길이본인의품안키엿든것입니다

이와가튼 사실을 권연모두고 약혼한 오늘날 본인은어떠한 길을취할이 오릿가요? 원리 사실이 사실이만큼 녀자의 정조까지도 의심케되엿사오니 녀자와 일생을가치한대도이러한 불쾌한 의심이둘게됩니다 그러면

지금생각버리고 결혼하시요

△C記者△

답 약혼하엿다가도 녀자의불미한점을발견하고 파혼하는일도 만습니다만은 지금당신의글을 보니 그녀자가 당신이외에다

가정위학

기침에혈담과 위장병이잇서

문 一, 저의모친은 금년륙십세이온데 이삼년전부터기침을하면 종종혈담이나옵니다 별로피로토하는일은업스나 답은건부룸은빗츠로 되야잇사오며 취침중에는 허한봄만히흡니다 오니병명과 자택치료법을하교하여주소서

二, 저는삼십팔세 남자로서이십여년간위장병으로 고통중며 변은랭생을두고 활변이안이면 설사를합니다 최근에 약지기위고장엽(胃腸藥)을복용한후 처음으로대변이 조화지고처중에도 효력을보게되오니 이약을계속복용하야도 조흘는지 하교하여주소서 (川邑內 朴生)

답 혈담을 검사하야보기전에는정확한진단을하야 병명을 알녀드리기어렵습니다 폐디스토마(토질)이나 폐결핵(부족증)일것십니다 좌우간자택에잇서서는 일광이잘들고 공긔가 잘 통하는방에거처하며 심신에피로를피하고 자양섭취에힘을쓰서 식사로보충하야 보십시요

무슨약이든지 효력을어더병이나으면 일단정지함이 조흡니다 이것을계속복용하면 나중에는 그병이 재발되엿슬때에 그 약을먹어도 듯지안습니다

醫學博士任明宰

월경이뭇치고 입맛이업서

문 저는금년이십세되는 녀자로서작년시월에 결혼하엿습니다 한때한번도 번진적이업시월경을하여 왓는데 이번오월달에는번디고 십일전부터음식을먹으면 메식메식구역이나고 눈어줍어하며 몸이면치안으니 임신인가요? 무삼병일까요? 속히 알여주시요 (平壤 一女性)

답 아마 음력오월달인모양이온데 오월인지 윤오월인지 도알엇서야하겟고 어번 유월에도월경이 업섯사오면 아마임신의 중후일것입니다 임신이면 진찰 치료를하서야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후일에는 중어려운병으로 변화하기가 쉬웁니다

(産婦人科院長 許 信)

코가나저서 거정입니다

문 이십세의남자이온대 선천적으로 코가나저 항상비관합니다 코를돕게하는의학상방법이 현재의의학계에 잇웁니까 부대 하교하시압 그리고「파라핀」주사라는융비술(隆鼻術)이 잇는데이방법의결점(缺點)등을아울너하교하시압 (大邱 悲觀生)

답 융비술에는「파라핀」으로하는법이 항용하는법입니다 결점이라면 별것이업습니다다만 의사의긔술이 큰문제입니다 적당한곳에적당한분량의「파라핀」을단번에너허야 어여분코를만들수잇습니다

眼耳鼻咽喉科院長 鄭起燮

피부병에 왜몸이나붓는가

문 피부병이잇는 사람으로무스리유로수영을하면 해가됩니까 (市內 一讀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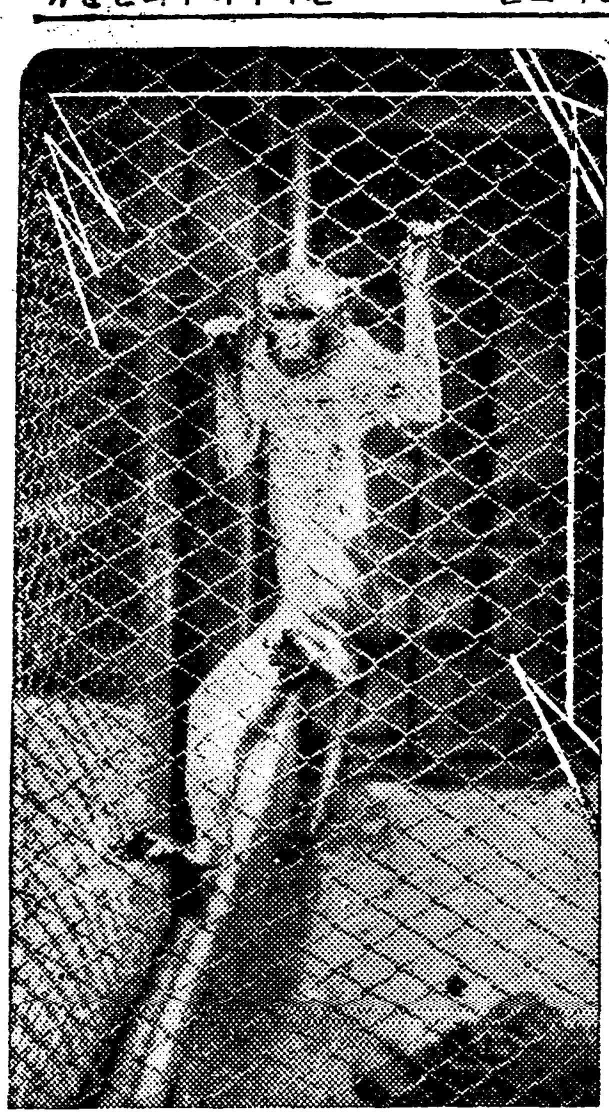
답 자극되야 중세가악화할염려가 잇는까닭이외다

醫學博士 吳元錫

動物園訪問 (2)

猿公의하로살님

이세상에오락은 딴스, 나무타기, 이잡기 일년에한번씩해산



◇……동물원에인긔를한몸에모되고 어린아이든지어른에게선물을만히밧는것은 원숭이군이올시다 던저주는과자나콩을암안눈동자를굴굴이 굴니면서 납족납족바다먹기도하며또는 감사하다고 고개를숙이리여서 활도하며 손을드리겸례하는것이야말로 누구나한번 웃지안코는 견될수업슬만치 가진재조를부리고잇는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의재조도 제각각다른바 원숭이가운데에 춤잘추는원숭이가잇서서 어느때를물론하고 관중이만이 모되여서 던저주는산물이만키만하면 대포적으로빼아서그약한이생긴중예이를 내두르며박자를마추워줍니다 이째에도류들의털보중이손으로박수까지던져주고 여긔에다관중의우숨소리박수소리가지석기여서 염헤잇는다른동물들을써지 고개를기웃

◇……동물원안에잇는원숭이는현재그수가 설흔한머리가잇서서한곳에 여러머리가잇는곳도잇스며 간음따로따로하야 부부(夫婦)생활을하는 원숭이도잇습니다원숭이의 그 산지(産地)를든다면 전세계어되서든지나게되며 따라서그종류도여러가지종류가잇습니다

◇……동물원안에서이상한생기여 눈에뒤이는원숭이는 쇠리가제일긴것이다 제일꼬리가는 원숭이며 또한이상한것은 불알이파란원숭이가잇서서 가만이보면 관중에불을켜노은것과가티 광채를빗내고잇는것입니다

◇……원숭이는 일년에 꼭한번씩 귀여운원숭이애기를나으며 대개세살네살써가 한참장성할때라고하며 이십세가되면 아주늙은원숭이여서죽는다고합니다 그러고 원숭이는차홀는질하는동물로써 항상싸우는바 변장자의명령을듯데복종을하며 종잘못하는일이잇스면 못원숭이가 모여드려서뻐린다고합니다 이곳에 동물이생긴여잇는 원숭이가잇서서 그나이가이미이십세인바 이원숭이는이곳에왕으로써 자긔의권리를상당이 부리고잇다고합니다 그래서 아츰이되면 컨부이려나서 일광욕(日光浴)을하며 창살에매여달여 운동을하며 또는변쓰하는 원숭이에게 현대류행하는춤을배우는듯별별작란을다하다가도 이십세되여원숭이가소리만한번질으면 고만정지를하고만다고합니다

◇……원숭이가 먹는물건은산속에잇슬째는 과일종류를따서먹고지내는바 동물원에서는 아츰과커녁으로 감자、노락、인삼、우유、비스켓등을각각 원숭이에따라서 논하먹인다고합니다 그런데원숭이의가축은 한바용으로실용한다고합니다

大邱에서열니는 權泰浩氏獨唱會

◇九月二日夜大邱公會堂서 本報大邱支局後援으로

【大邱】 오는구월이일오후팔시반각부터 대구학생(大邱學生)Y•M•C•A•에서는 본보대구지국(本報大邱支局)의후원으로 대구가나은 테너ー의명가수 권태호(權泰浩)씨독창회를개최하리라한다 씨는 동경음악학교성악과출신으로 특히 독일파음악에 조예가깁고 이번독창회에는 씨의 장긔인슈벨트의 『싸그녀』의극목이잇슬것은물론 그밧게 각국민요와 특히 조선최근의 창작민요를 연출하야 일반청중에게 만족을주리라는바 오래동안 음악애호가와 일반인사 학생간에는 열광적인긔를 날고잇다한다 이번독창회의 연출곡목은아래와갓다

◇權泰浩獨唱會曲目◇

◇第一部

一、A 카로 미요 벤 (伊太利民謠) 지오바니作曲
B 누나야보슬 보슬 봄비 朴泰俊作曲

二、A 마루타 푸로토作曲
B 도라오는배 朴泰俊作曲

三、헨더ー獨唱(助演) 權泰義君
A 하눌써짐香(民謠) 朴泰俊作曲
B 중중 예예중 朴泰俊作曲

四、A 歌劇「리엔치의指揮」中에서一節 리엔치 바그넬作曲
B 오•스산나(亞米利加民謠) 포스터作曲

五、落花岩 李光洙歌梁貞田曲

▲第二部

一、A 送靜(Wie Post) 슈베르트作曲
B 朝鮮의노래 權泰浩作曲

二、돈 싼 모잘트作曲

三、A 芬蘭의森林 芬蘭民謠
B 가을바람이지 朴泰俊作曲

四、렌더ー獨唱(助演)權泰義君
A 옥수수가운다 (慶尙移)
B 양양범버중 朴泰俊編曲

五、A 노래의나래우에 맨들스존作曲
B 海邊의追憶 金水卿歌 成田爲三曲

六、A 알노하의(하와이民謠)
B 리ー드風의아리랑 朴泰俊編曲

伴奏 헨더선夫人

라디오

八月二十六日(土曜) (波長四四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二、唱劇調 어화靑春 沈淸傳中 沈淸이下直하는데
鼓手 韓成俊 吳太石
◇同○時四○分 뉴ー스
◇同二時 常識講座 高句麗와百濟 (二) 崔文鎬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事項
◇六時 童話 기특한생각 金鳳兗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큰戰爭이야기 (三) 丁洪敎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趣味講話 음의哲學 (三) 李晶燮
◇同八時 俗謠
一、赤壁歌
二、遊山歌
三、제비가
四、小春香歌
李正云
◇同八時三○分 流行歌 柳開東
一、서울行進曲…金敎聲作曲
二、쑷 과 별…全壽麟作曲
三、배 노 래……同
四、南大門打鈴……同
五、스러진꿈……同
六、봄 바 람……同
아코듸온…全壽麟 클라리넷트…金敎聲 美石燕
◇同九時 連續古談 報恩酒幕 (三) 朴寅成
◇同九時三○分 (A)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八月二十六日(土曜) 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A)ラヂオ體操 ▲同六時二五分 婦人と職業 ▲午後○時五分 新日本音樂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講演 ▲六時二五分 (J)傳說と史蹟を探ねて(十二) ▲同七時三○分 (C)絃樂合奏 ▲同七時五○分(B)童話劇 ▲同八時二○分(A)獨唱 ▲同九時四○分 (A)童話 ▲同九時 (B)獨唱と管絃樂 管絃樂 大阪放送管絃樂團 獨唱 竹內禎子

◇明日順序◇

八月二十七日(日曜) (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氣象通報 ▲同○時三○分 뉴ー스 ▲同○時五○分 映畵物語 愛國者 成東鎬 音樂伴奏 ▲同六時 童話 달나라會員 피아노伴奏 洪仁基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묵아는것이무엇이냐 尹建鎬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獨唱과피아노 金惠子 ▲同八時 歌詞 吳卿色 金銀珠 ▲同八時三○分 京畿坐唱 赴牧丹 金蓮玉 ▲同九時 西道俗謠 李小紅 郭香蘭 ▲同九時三○分(A)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人形의집을나와서 【82】

【8 노라의後日譚】

蔡萬植 作 吉鎭燮 畫

백색노예 (八)

이선생이라는 사람이 차저온것이다

정원이는 씹는듯이 맛잇게먹든 밥에 돌이나 씹은듯이 이맛살을찌푸리고 마나님을 도라본다

마나님은 이것이 한달전이라면 두말업시 뛰여 나갓슬것이다 그러나 그는 딸의심정의 변화를 짐우게 보담도 더잘 짐작한다

「정원이 업시요」

내어다 보지도 아니하고이렇게 대답을한다

노ー라와 혜경이는 무심결에 서로 치어다보앗다

방문이 활히 열니엇스니중문간에서 조곰만 고개를드려밀어도 방안이 굽어다보인다 또 베들에는 정원이의 구두가또렷이 노혀잇다 입버처지 직거리든 목소리가 박게까지응당 들녓슬것이다 노ー라는자긔얼굴이 화끈 다는것가터정원이를 바로보지못하고 외면을하엿다

「아니 왓서요?」

한달전에 큰집을 사달나는 말에 사드리지요하고 친숙하게 대답하든 그말씨 그음조 그대로다

「아니왓서요」

이대답은 생판 못으는사람에게 하는그대로다

박게서는 한참잇다가 뚜벅뚜벅 발자죽소리가 멀어진다

노ー라는 재환이가 어떠한가하고 돌녀다보니 깃붐을감추다못하여 남은미소가 입가장자리로 흔흔히 흘너커나오고잇다

그러자 혜경이가 양동을쓰모하여가지고 만지작어리다가 내놋차 패가 손에서 떠러지기가 밥부게 정원이와 재환이의 「홈ー라!」하는 음양 쌍주곡이 요란히 울닌다 얼결에 혜경이는 「아이구머니!」 소리를치고 던진패를 돌우집어가려다가만다

정원이가 양동을 집어다가 딱 맛추어 놋는다

「구백설흔 일천팔백예순……옥당에 쓰거화」

재환이는 춤이라도 출뜻이 깃버한다

「아즈머니가 쌍이지? 아직박아지가 남엇수?」

정원이가 혜경이를 놀닌다

「거짓말아……재환씨는 가만 좀게시우! 늙이하는걸 당할수가 잇서야지」

「허허……미안합니다 그러면 김선생코ー쉬를 해들이지요」

「제발 실혀요……가만히 안저나게서요」

「돈닷돈 내노코 커차 키차한다는데 속이 쓰서서 가만잇슬수가 잇서야지요」

그러나 무렵을당한 재환이는 뒤로 물너안젓다 비시반에 시작한 마작인데 서풍초에 여섯시가 거진되엿다 마나님은 피우든 담배대로 재터러에 혀고 일어섯다

「커녁밥이나 짓자……해가좀 열버첫는디……」

재환이는 노인이 일어서서 도 주춤주춤하고 박그로 나가지 아니하는 눈치를 잘안다

「커녁밥 짓지마시지요 마작이 못나면 진고개나 가치가서 커녁을 잡숫게……」

「그래서 쓰나요 늘그러케용처를 쓰시게해서……」

「천만에요……그만두고 안커서 구경이나하세요……나는 나가서 자동차부에 전화나걸고오지요」

「나가신길에 선생님 심부럼 좀 해주세요」

정원이가 패를 굽어다보고 안저서 정말 심부럼식히듯이 청을한다

「네」

「아이스크림이 업스면 밀크세ー키」

사실 마작에 열중되어 더웁다고 하는사람은 업서도모다들 땀을 펴흘니고잇다

음식가든것을 불너오면 그것이 재환이가 자발적으로한것이면 말할것도 업지만 의례히 정원이가 식혀오는것도 돈은 재환이가 선돗 나서서 치뤄준다 정원이는 형식으로 지갑을 쓰내들기만한다

그런 속을잘아는 혜경이는 조롱하기를 이커버리지 아니한다

「이기고도 한턱내니?」

「그럼……의인턱으로……그대신 잇다가 아즈머니는 진털을 내시요」

「나는 구서방이 구두쇠가되야서」

이말에 달는사람은 웃는데 정원이는 새촘하엿다

悲慘한咸安水災 農作被害만百萬圓

家屋浸水가一千三十餘戶 要救濟者가一千六十餘戶 人命死傷卄九人

【咸安】 두번재나 엇습한 함안지방의 호우는 수만생령의생명과 재산을 여지업시위협하야 비참한정도가 그극에 달하엿다함은 그시에 대략보도한바어니와 이제그피해정도를 상세히조사한바에 의하면 경지침수면적이 오천사백칠십오정륙반이며 가옥침수가 일천삼십오호 라는 막대한 수자를 나타내여농작물피해만 무려백만원을 돌파하리라는데 그상세한것을 각면별로 렬거하면 다음과갓다한다

◇水災被害狀況

面名		浸水面積 町反	無收穫地 町反
伽倻	畓	五九三	五〇三
	田	一〇八〇	一七二
郡北	同	[illegible]	[illegible]
法守	同	[illegible]	[illegible]
代山	同	[illegible]	[illegible]
漆西	同	[illegible]	[illegible]
漆北	同	[illegible]	[illegible]
山仁	同	[illegible]	[illegible]
計	畓	[illegible]	[illegible]
	田	[illegible]	[illegible]

家屋浸水一〇三五戶 全潰一〇九二棟 半潰八二四棟 流失二六九棟 負傷者 二十人 死者 九人 要救者一〇六〇戶…全部統計 (八月二十二日現在)

하야 동읍시에지 약세시간동안 와계속하야해주군검단면온천리(海州郡檢丹面溫泉里)부근냉정천(冷井川)의증수로 다리(橋)우에약두메-돌이 올나 박큼해주신천가의 교통이두절되어 해룡(海龍)해신(海信)양자동차부

慶南道의 災害免稅總額

十一萬六千七百餘圓

【釜山】 세번이나당한풍수해로말미암아 경남도 세무당국에서조사한 지세면세액 예상은재해지 팔천이백륙십칠정보에 륙백륙십구원인바 부읍면의 지세부가세 사만삼백 삼십삼원 호세일천륙백십오원 오십구전 어업세 이천이백삼십팔원 십일전합계 사만륙천칠백 이십이원의 다액에 달하야 읍면세입결손으로 맘미암아 케반사업에 막대한 돈좌를 보게되엿는데 그의 보급 방침은 대략 국고보조를 바뎌보충할의향이며 하천보담금 본년증수액약오만원은 금후칠개년의 부담금과아울너 십오개년 년부상환의방침을 강구 할터이라한다

만일천륙백 팔십칠원 황무지역

信川地方에 豪雨暴注

交通全部杜絶 農作被害多大

【信川】 황해도신천과해주지방을 중심으로 지난이십삼일오전칠시경부터 비가내리기 시작

加平保健體操 盛況으로終幕

【加平】 경긔도가평군하면현리(下面縣里)에서는지난십오일부터 강사 최병규(崔炳圭)씨의 지휘로일주일간을 회원삼십여명이 일심으로강습하야성황리에개강하엿다한다

◇寫眞 體操講習의一場面

內外金剛의 探勝道路復舊

何等不便이업슬뿐아니라 本格的工事를進行

【內金剛】 수재로 인하야 교통이 불편하든 내외금강의 탐승도로는 각다처의활동과 관내주민들의 공동작업으로 도로를탕시수선한결과 탐승로는 곳복구되며 교통은 비로봉(毘盧峯)의영상(嶺上)도로가 조-불편할뿐이고 탐승에는하등의 불편이업도록 수선되엇슬뿐아니라 강원도당국에서는 본격적의 복구공사를목하진행중이라한다

大邱 學事 本館上棟式擧行

【大邱】 대구의학전문학교는 교사건축비 십삼만원 예산으로 긔공하야 작년십월부터 공사중이든바 근일긔초건축이 다되엇슴으로 이십일일 오전열시부터 부내 관민유지삼백여명의 참석으로 본관상량식을 성대히 거행한다는바 교사완성긔일은 오는 십월중순경이며 학생이 신교사에서 공부하게될날자는 부속품비치관계로 십이월경이나 될듯 하다고한다

에서는 오천정긔를 신고오릉다 섯시외지 교통은 두절되엇는데 부근일대는 침수가옥도 만히잇스며 농작물의피해도 적지안은모양이바 피해는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感情問題로 一圓債權訴訟

【大邱】 대구지방법원에이원이십칠전의 민사소송 원고청주군청파면 봉양동(鳳陽洞) 김년술(金明述)(假名)은소화륙년 이월십오일에 이웃에사는피고박명춘(朴明春)(假名)에게일금 사원을 리자이푼오리반환긔일 소화륙년 십이월십오일 계약으로 빗놔주엇는데 피고는 작년십이월 십오일에원거행하리라한다

鳳城公普校舍竣功

【奉化】 봉성(鳳城)공립보통학교교사는 그간공사를 진행중이든바 지난칠월이십오일 그교사공사준공을 보게되엿는데 총공사비가 팔천오백원이고 총부지 이천사백칠십이평 이라하며 락성식은 추긔운동회를 긔회로 거행하리라한다

원금(元金)사원만 물고 리자를불지 안는다는것이다 이에대하야 피고는 채무는사원이아니고 이원인데 이원의리자를겸하야 사원을물어주엇다고 주장하야 서로심리하는 판사의 화해에도불응한다는바 긴요한 차용증서가업서서 증인을심문하기로 하고 감정에 억매인이소송은 이십삼일대구지방법원 케오호 법정에서열리기로 되엿는데 당일증인을심문하고 결심하기로 되엇다는바 이에드는소송비용은 소송액의수배에 달하리라 한다

平壤三大事件 九月初旬에公判

全部治維違反事件

【平壤】 평양홍원(洪原)출생의 로서아공산대학졸업생 정달헌(鄭達憲)(三七)을수범으로하야평양진공장의커비스트들로조직하고 양말공장 파업사건의 선동지하운동의 케일계단으로 점차부내전공장에 파급케하려다가 체포된 케일회직색동조합사건 평양지방법원 예심을 거처어 피고아홉명이방금동법원공판에 회부되여 잇는것은 긔보한바어니와 미천추수(米川秋穗)를수범으로하는 연초전매국직화사건윤상남(尹相南)을수범으로하는 진남포상공학교(鎭南浦商工學校)적화사건의 치안유지법 의반사건과함께 구월초부터 본다(本多)부장 주심교본(橋本)검사립회하에순차로공판개정을보기로되엿다 그런데 정달헌사건의 피고중일명으로 긘긔중업원으로 총파업을단행하며 평양진남포 량도시의암흑화를 계획하다가 체포된 평북철산(鐵山)출생의 청두원(鄭斗垣)(三三)은이십사일평양형무소에서 본다재판장에게 향하여

옥중에서 생각하니 지은죄 가중함을 이케새삼스럽게 늣긴다 국가비상시인이때 단호히 파거의과오를청산하고 조흔

(先에)로 인한 국민이 될여하는터이니 급속히 처벌해달나

는 사상전환의 의사를표시하는 서신을 발송하여왓다 재판장은 이에대하여 사상전환의 근본청신이 어대잇는지 공판에대한일 종의『책략』이나 안인가?하여 관심을가지고잇다한다

江景에竊盜

【江景】 충남강경(江景)은남조선지방에유수한장터로추석명절을압두고 상인들의 활동이맹렬한곳인데 당지시장에잇는 고무화상 리강욱 상점 (李康郁商店)에서는지난이십구일밤에 강경장(江景市)을보고 시재의일부 현금 일백사십여원을 수케속고에 너허둔것을 이십일밤 오전한시경에 도난당하엿다고하야 당지경찰서사법계에서는 맹렬히 강도사건이 낙착되자 다시사건이생기여 비상한활동을 하는중이나 아직범인은 잡히지아니하엿다한다

김한식(金漢植)(四五)은 위천면수승대(渭川面搜勝臺)압내에서 목욕하다가 물에빠저 죽엇다는데 긘긔김한식은 금년봄에상처를하고 아직철모르는 어린자녀 사남매에게 랑을못치고 쓸쓸한세상사리를 해오든중 지난이십삼일에 그와갓치 무참히도죽어버리여 어머니를 일코다만하나밧게업는 아버지마저 일코 살아

家具를窃盜 現場에서被捉

오후네시경에 붕잡을 수남도에두고 주소가일정치못하게 도라다니는최긔남(崔基南)(二七)의 사오명은 종로오정목 회백류련지ㆍ당부(堂富)모의집에들어가 남비와 기타수건외 살림도구를훔치다는현의로 처포되여 동대문서로 인치되엇다한다

豐作을노리는債鬼

立稻差押의前哨戰으로 支拂命令이每日數十件 大邱地方農民戰戰兢兢

【大邱】 매년추수때가되면채권자와 고리업자는 촌민이일년간로력한결과를 노리고 잇다가 추수도갓나기전에 립도차압을하야 버리는것은 년년행사가 되다십이하여것거니와금년도풍년이되리라고보는 채귀는 아직버이삭도 나기전에 립도차압의전케로 지불명령을 청구하야근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매일 수십건식 케출하야업서 수백건에달한다는바 지불명령을밧는 농민들은 극도로불안하야 도리어풍작을두려워하고잇는상태이라고한다

원에처하얏든바 김씨는 이것을불복하야 정식재판을 청구하얏는데 이십일일 강릉지청에서 그의공판이 열리엿섯는데김씨는 나의행위는 평소의교케를 하엿슴에 불과함으로결코 이런행위로써도의원 선거에잇서 자긔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를 바라서한 것은아니다 만약 선거의유리를 위하야한다면 좀더! 다른방책을썻슬것이다는주장하엿스나 역시인것을 밋는다고하얏스나 동씨는 벌금이십원에 처하얏다 동씨는 심히불만을 품고공소를 케긔할 것이라고 관측되는데 보문케는 장래에도 그여향하는바가 막대할것이여서 금후의전개가 심히 흥미잇다

農家의大福音 中耕用除草機

◇…白龍珪氏考案發明 一日九千坪을除草

【新義州】 의주군위원면사상동(義州郡威遠面四上洞) 구십구번지 백룡규 (白龍珪) (三七) 씨는 어렷슬때부터 발명가적소질이 풍부하여그동안에도 긘파기(擺播機) 외수건을 고안발명하여세인을 놀래이든바 작년도에 니르러 중경용케초긔 (中耕用除草機) 를고안하여동경 특허국 (東京特許局) 에특허를신청중이든바 지난십팔일특허가 등록되엿슴으로 다시만주 허국에등록수속중 이라는데동케초긔는약팔원 의가격이 면될것으로하로에 구천평을 케초할수잇다한다 가타동씨고안의팔 건의긔계를 케조하려면불소한 자금을 요할것으로 동긔계발명자씨는 지금자본을우동코커분망중이라는데 비리해잇는 자본주가 그의사업을 후원하여장래의 발명가가 되게알길을 개척하야 주기를열망하는바라 한다고한다

◇寫眞……中耕用除草機와發明者와 白龍珪氏

兄弟亂鬪騷動

『노모를공양치안는놈은 불효자다죽임이맛당해』

【車輦館】 이십이일오후두시경 철산면서부동 (鐵山面西部洞) 홍규방(洪規防)목공소에서 일하는목수 형케가차홍하야 일장분형극을 연출하엿다는바 그보기드믈직한 형케류혈극의 내용을듯건대 김병학 (金炳學)(三兄)김병수(金炳守)(弟)(二八)란두형케는 년전부터 진긔홍가방목공소에서일을하든바 동생 김병수는 팔십로모를 부양함에도 불구하고 형인김병학은 가뎌번역쌍을 반분커녕 도뢰혀자긔가 돈을만히슴으로 동생은분한김에 술을마시고 곤봉을들고 형이일하고잇는것을 수차란다항으로 형은매를 익이지못하야 일어나동생을 들아래로밧차버리자 들아래 노여잇든 큰톱아리에 김병수가 떠러저서 외이팔둑 대동맥이 근어지며 면부에는 쌤과미간사이에 기리약일촌이나 되는상처를 바다 전신에 피투성이를하여 가지고 팔십로모를 치지안는 자는 불효자라 단연죽여야한다고 일러에쓰는 단도를들고형을따라 단이는 것을 보는사람으로하여금 공포에 치게하엿다고한다

어린四男妹남기고 其父는溺死

【居昌】 지난이십삼일하오오시경에 거창읍하동시장동(居昌邑下洞市場洞)에서 모목상하는 나오든 금년십륙세의 큰딸윤조(允祚)(二六)은옷으로쉐살되는어린동생들을업고동녁하는정경은그 근동에사는사람으로하여금한숨 기의눈물을 금치못하게 한다하며 장차로의지할곳이 업는사남매의전청이 참으로 가련하다한다

假新聞記者 戀群을恐喝騙財

大田署에檢擧嚴調中

【大田】 지난륙월밤에대전역수(大田驛手)로잇든권모(田宋)가동정(東町)사는김모의처미자(美子)(二〇)―(假名)와정을통하고밥이깁흔때 밀회를하든동 안이정체모를 청년이낫하나 는신문긔자이다 너의주소와 성명그리고 직업은 무엇이냐고무릅으로 권별남이는 권부가三커 주엇더니 다시팔일에 차커와서 금권을 강청하면서 만약돈을아니주면너의 직업을 박탈하야버린다고 위협함으로 권별남이는 지은죄가 잇는지라 돈삼원을주고되는대로 곳줄러이니 용서하야달나고 애원하엿스나 버내듯지아니하고 십원만 달나고위협하야엇소나 맛츰가진것이 업서주지못하얏다 이를탐문한 대전서에서는 대활동을 개시하야지난이십이일에 체포하야다가엄중이취조를 하얏다는바 그는녹아도신문(鹿兒島新聞)긔자라고 자칭하는 영긘중행 (永吉重行) (二三)이라는자로판명되얏다

車夫一名慘死

【抱川】포천군 군내면구읍리령병이(郡內…

『술취넘』도 選擧違反

【江陵】 강원도 삼척군(三陟郡)선출연도회의원 김동학(金東赫)씨는금년이월 면의원의 의미로『술취넘』한것이 뼈마솜씨가 도회의원지방선거취체규측위반이라하야 리홍보통읍으로 이행위가 조선삼척경찰서에 고발되어 일건서류를 강릉검사국에 송치되엇든 대검사도 삼척경찰서장의 의견을 올다하야 유죄로결정하야 략식재판관늘 취장규측 케팔조 일 락식으로 동취체규측위반 일 저일호케일항에의하야벌금이십

將來의大工業地帶 新興箕林里의發展

現在도大工場이卄餘個 投資額이約五十餘萬圓

【平壤】 신흥지대긔림리 (箕林里) 서 평양익전에는 팔목상대할만한 발전을하고 잇거니와 보통강개수와 아울너 보통강량안은 금후공업지구를 건설하게될것이다 긔림리일대에는 현재에도 고무공장 양말공장청미공장등 이십일개의 공장이잇고여기에 투자액은 오십여만원에달햇스며 종업원도 일천백여명에달한다 나 목하현안중에잇는 전매지국공장이 이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공장과 기타를건축하게되면 공업시험소까지 합하여대다면 공업지대를 자랑키에 조금도손색이업스며 또한민간측 사업의대공장 륙개처가 신축중임으로준공되는때에는 면목을 더욱도칠것이다

避病舍新築

【大田】 대전피병사는종래불완전하야 여러가지 불편이만햇섯든바 이십일일 신택위생과장(新宅衛生課長)과재등읍장 (齋藤邑長)삼화도립의원장(三和道立醫院長)삼씨가 협의한결과경비북천원으로 금년말까지 도립의원부지내에신축키로되어 방금 설계에착수하엿다한다

農民指導機關으로 青年協會創立

【楚山】 평북초산(楚山)군내에는 농민의지도긔관이업서 일반농민은 유감히 생각하고잇든

反對,非反對의 兩派强硬對立

今後相當紛糾未免? 平電賣渡問題

【平壤】 평양부영전긔의 매도문케는 합동전긔회사의 설립파가티 소화십일년 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이 서조선에 송전을개시하는 긔회를타서 구체화할모양인데 서조선의 전긔통케의진섬과 따르는문케로서 부영전긔의 매수문케도 밝서론란되기시작햇다 부민중에서는 부전도를 결정한대도 가격문케로부민 회사간에서 흥미잇는절충이잇슬것으로본다

반의 공긔로서는 매도문케에특별한 반대는업다할지나 가격유리케하고 가등(街燈)기타에대한 부민의리해관계가 깁흔조건을 충분고려할것이라는 일파와 매도절대반대를주장하는 량파에갈리여 상당히 분규를예상할수잇스며 설사 통일이되여매

鱶魚群襲來로 咸北魚產打擊

天候不調로出漁도不能 對策講究의急務

【淸津】 북조선수산계의생명이오 일본어비시장의日本魚肥市場)에약진하는함북온어유박(咸北鰮魚油粕)은본년도에 대량생산을긔대하엿든바 의외로 해업에대적인 양어군(鱶魚群)의 습래로 진연볼어의 상태에빠젓스며 또근일은폭풍우의 계속으로 출어처도 못하는관계로 어민일반은 대곤경에빠질뿐아니라 방금사활선상에서 방황함으로 수산조합취진지부에서는 대책에고심하는 중이라는바 본월이십일현재의 생산을 작년동긔에비하면 다음과가튼데 차이가잇다고한다

年度	鰮	油	醱粕
昭和八年	二三四、六九	六六、五六	依
昭和七年	七二、〇二	八三、四八	
差引增減	減四三、二二	一六、九	

安東縣에서 修養講演開催

卄四日公會堂에서

【安東縣】 평양에 본부를둔청년교양사(靑年敎養社)에서는 수사원을 연서각지에파송하야 수양강연을 개최하여 만호환영을바더오든바 당지에서도 재안수양증심 조선인청년회의 후원으로 이십사일오후칠시부터 안동

運動競技

納涼協會主催 湖南시름大會

【群山】 오는팔월이십오일부터군산남량협회(群山納涼協會)의주최로 호남시름대회를 군산마-케드 공장내에서 개최하기로되엿는데 팔월이십오일 부터말일까지 엿새동안의 결승상을주며구월일일부터 칠일까지 케이회의 결승상을주기로 하엿다는바호남일대의 력사들은 다수히와주기를 바란다하며 시름대회

海琮俱樂主催 個人庭球大會

【海州】 황해도해주해종구락부주최(海琮俱樂部主催)로서조선개인청구대회를좌긔시일장소에서 개최하기로하얏다 한다

一、時日 九月三日(日曜)
一、場所 海琮俱樂部코-트

◇主催 海琮俱樂部
◇後援 朝鮮日報海州支局 東亞日報海州支局

慶北庭球大會 尙州A軍優勝

【尙州】 경북상주에서는상주정구구락부주최, 본보상주지국후원으로 케이회 경북정구대회를 지난이십일일 상주녀자보교코-트에서 개최하고 백열전을연출하야 결승전에 들어갈지음에 소낙비가내림으로 부득이중지하얏다가 이십일일 오후사시에 계속개전한결과 우승긔는상주A군으로도라갓다한다

忠南蹴球大會 主催팀이優勝

【保寧】 충남보령군주산축구단(珠山蹴球團)주최인케륙회충남축구대회는 지난 이십일일에 개최하고 맹렬히싸운결과 우승긔는 주최팀에게로 도라갓다한다

文川蹴球大會 九個團體參加

【文川】 함남문천 류학생회에서는 지난이십삼일간 케이회전문천축구대회를 구개단체참가로 백열적전선에서 싸워 최후우승의월계관은문천체육회로도라갓다한다

張韺氏를招請 對抗力技會에

【安州】 안주청룡단주최와본보안주지국후원으로이십륙일파 서단체대항 력기대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대회를한층더의미잇게하기위하야서계적괴력가(怪力家)장영(張韺)씨를 초빙하며 평양철체연구소(鐵體硏究所)로부터관선유수의 철봉가를 초빙하게 되엿다고한다

여긔정은 다음과갓다고하야
一等一人 優勝旗外農牛一頭
二等一人 廣木一匹
三等一人 廣木一匹
四等一人 白木二匹
五等一人 白木一匹 洋傘一本

淸津	遮湖	平澤
咸北個人庭球大會	北朝鮮庭球大會	平澤脚戲大會
△日時 八月二十七日	△時日 九月三日	△時日 陰七月十五日부터六日間
△場所 淸津鐵道局코-트	△場所 遮湖公普校코-트	△場所 平澤市場埋立地
◇主催 淸津學友會	◇主催 遮湖公普校友會	◇主催 平澤面、平澤協贊會
◇後援 朝鮮日報淸津支局	◇後援 東亞日報利原支局朝鮮日報遮湖分局	◇後援 東亞、朝鮮南支局

【楚山 continued】 ▲各洞農民團體組織及指導 ▲指導事項 文盲退治 生活改善 體育獎勵 產業增殖 消費節約 ▲任員 會長 金明得 副會長 李元淳 總務部長張革 敎養部長元世通 指導部長趙炳元

시의장 김명득(金明得)씨의 사회로 초산농촌청년협회를 창립하기로 일치가결한후 계속하야 간담회를열고 서로좌담을 피로하고 농촌지도상의 의견을교환한후 다시초산공립보통학교강당에서 창립총회를개최하고 다음과갓치 임원을선정한후 폐회하엿다한다

부용루(芙蓉樓)에 회집하야 령전청년삼십명이 초산읍내 로청증 지난팔월칠일 전군각동중

大邱

하이데너― 權泰浩獨唱會

時日 九月二日(土) 午後八時半
場所 大邱府公會堂
會員券 普通 三十錢 小中學生 二十錢 本報讀者普通 二十錢 學生十五錢
◇主催 大邱學生YMCA
◇後援 朝鮮日報社大邱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68

琴童 作 芝山 畵

九의六

영어 갑판서 을판서의 행은 벽치ㅅ소리 요란하 구종별배를 달고 이 필운대를 떠낫다 게월이의 박게 따른 기생들은 떠낫다 뭇쉽거질을 하고 하인들도 돌아갓다 그 뒤에 남은것은 흥선과 게월과 좀 아래쪽에 게월이의 교군꾼뿐이엿다

흥선은 무연히 서 잇섯다 그 겨테 게월이도 종그리고 잡자코 안저 잇섯다 하늘은 색카마케 되엇다 금시로 소낙비가 쏘다 질듯하엿다 와르르 와르르 천동ㅅ소리가 련하여 낫다 하늘을 날든 새색기들도 이 무쉬운 날세를 피하여 각기 제 칫으로 전속력으로 날아갓다

그러나 이런 날세의 변화도 모르는듯이 흥선과 게월은 움지기지 안코 잇섯다 『댁으로 모시랍쇼?』 교군꾼이 보다못하여 게월이는 모르는듯할뼈에또 게월이는 모르는듯이 가만 잇섯다 드듸어 게월이가 먼커 조금 머리를 들엇다 『대감』 흥선은 대답지 안헛다 못드른 듯이 그냥 잇섯다 『대감!』 『……』 『대감』 『어! 날세 고약하군 비가 곳 올모양이군 게월이 너웨 어서 가지 안느냐』 『대감』 『자 어서 가거라 여봐라! 교군꾼 어서 모서라』 아아 이 공자는 벌서 그 모욕을 이젓나? 게월이로서도 아직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거늘 당자 흥선대감은벌서는 이젓는가 게월이가 너무도 어굴하기 때문에 눈물머금은 눈을 치들고 흥선의 얼굴을바라보매 홍선의 얼굴에 아ㅅ가 하인들 호령할때에 나타낫든 표정은 사라진듯어 업서지고 레사로운 얼골로자괴를 커다보는 게월이를마조굽어보앗다 그러나 게월이가 자세히보매홍선의얼굴에도 눈물흔적이 뚜렷이 남어잇섯다 아까 뚜연히

게월이는 들엇다 이 소낙비에 기다리든 게월이의 교군꾼은 또 달려왓다 그것을 귀찬하여서 게월이는 흥선에게는 무엇이 인사도 하지 안코 사인교에몸을 실엇다 소낙비ㅅ가운데로 다름질처서 사라저 들어가는 게월이의 사인교를 흥선은 떠부웃이 나려다 보고 잇섯다 그냥 몸을 움지기려지도안햇다 떠부웃은 소낙비를 피하려지도 안헛다 흥선의 얼굴에서 줄줄 흘러서 옷으로 떠러지는물― 그것은 소낙비 뿐일까 흥선의 비분의 눈물이 소낙비에 감초여서 함께 흐르는것이아닐까 무서운 천동ㅅ소리 무서운 비ㅅ소리 벌서 왈작이를 흐르든 개울ㅅ소리―이 가운데 흥선은 비를 겹다하지안코 축은듯이 서 잇섯다 흥선이 겨우 그곳서 발을 떼이것은 게월이가 나려간뒤에도 한참 지나서 홍선의 초라한 옷은 속속드리 비에저거서 무섭기 한엽사 되엿다 필운대에서 나려오든 홍선은 도중에서교군을한맛낫다 게월이가 먼저나려가서 홍선을 모시러보낸 교군이엿다 이에 한때저즌 홍선은 게월이가보낸교군에게 몸을의탁하엿다

『대감 나려가서요』 『먼저 가거라 나야거름갈사람―』 『비가 오실터이데―』 우뎍덕 커다란 한방울이 떠러젓다 그것이 군호엿다 한방울의 배-를 압정이 삼어 소낙비는 드되어 쏘다지기 시작하엿다 우뎍덕 뚝덕 좌-좌 한방울로 시작된 비는 한순간뒤에는 무서운 소낙비로 변하엿다 『아이구 이 비 대감 어서 가세요』 『버거정은 말고 먼커 가거라 비란도 좀 마저야겟다』 속이 너무 한다는 뜻으로 돌아서 잇슴에에 남에게감츠는 그의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것 이엇다